한양대학교 2020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인 문 계 |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 오 후

■ 출제 의도 및 근거

2020년도 인문계 논술 문제는 여러 수준의 기억이 구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문으로부터 추론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억 사이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예년의 논술 문제와 달리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답안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시문에서는 기억의 여러 특징에 대한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본에서 2차 대전 후에 집단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고 수험생으로 하여금 '기억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일반적 수준의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였다. 문제의 전반부에서는 각각 자전적 기억과 집단기억의 특징을 읽어낼 수 있는 두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제의 후반부에서는 제시문 (나)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된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억의 차이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가)는 출제자가 에릭 캔델과 래리 스콰이어가 함께 쓴 <기억의 비밀>(해나무), 앨리엇 애런슨과 캘럴 데브리스가 함께 슨 <거짓말의 진화, 자기정당화의 심리학>(추수밭)의 105~142쪽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억에 대한 최근 인지심리학 및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개인적 수준에서 기억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자전적 기억은 재구성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시문 (나)는 출제자가 제프리 K. 올릭의 <기억의 지도>(옥당), 박찬승의 <제2차 세계대전과 집단기억>(한울), 후지와라 기이치의 <전쟁을 기억한다>(일조각)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어떻게 집단기억이 개인의 자전적 기억의 수집과 편집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경과와 그렇게 형성된 집단기억이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집단기억과 충돌하는 문제를 가져왔음을 서술한다.

문제 전체의 주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55쪽~56쪽의 '국가와 윤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13쪽~214쪽의 '자민족, 자국가 중심주의의 위험성과 건전한 애국심'에 나와 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102쪽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미래앤 <한국사> 356쪽의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갈등'에 나와 있다. 또한 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117쪽의 '오늘날의 동아시아'의 내용과도 직결되며, 예를 들어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20쪽~221쪽 및 246쪽~248쪽에 각각 '동아시아 전후 처리과정에서의 미해결 과제'와 '역사 갈등'을 주제로 소개되어 있다.

1. 평가의 내용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억'의 개인적, 자전적 측면의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하였는지 여부
2)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전적 기억이 집단기억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예를 들어, 선택적 기억수집과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였는지 여부
3) 1)과 2)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4)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돌하는 집단기억들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 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 점
구성과 전개	기억이 갖는 재구성적 성격이 자전적 기억과 집단기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합적 설명을 제시한 후, 제시문 (나)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억 사이의 타당한 평가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20%
설득력 있는 종합과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	추론적 분석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여러 수준의 기억이 갖는 특징을 추론하여 서술한다.	25%
	설득력 있는 종합	'자전적 기억'과 '집단기억'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종합하여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합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20%
	창의적 해결책 제시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억, 예를 들어 제시문 (나)에 소개된,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국가들 사이의 집단기억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5%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평가한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❶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개인적, 자전적 수준의 기억이 갖는 재구성적 성격을 잘 설명하였다. ❷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집단적, 국가적 수준의 역사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잘 설명하였다. ❸ 이상의 내용을 적절하게 종합하여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였다. ❹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억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❶ ~ ❹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❶ ~ ❹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700자 미만.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상 1,000자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어문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